

# Ammi Newsletter

선교사의 글 | 김영애 선교사

간증1 | Bro. Joselito

암미 기도제목 | 편집부

간증2 | Sis. Mercy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신일호 선교사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읽고 | 김금숙 선교사

C채널 힐링토크 회복플러스를 보고 | 성기자 권사님

암미 선교 소식 | 편집부

후원감사 | 편집부

단체 및 개인 |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암미선교회/암미다문화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Tel. 031)571-6554, 574-3797  
e-mail. gloria3797@hanmail.net www.ammio.or.kr

## 코로나 시련 속의 은혜



김영애 선교사  
(Missionary Gloria Kim)

● 온 세상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그 위세가 여전한가 보다. 인도는 하루 평균 40만 명 정도의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한다. 인도 주변국인 스리랑카나 네팔도 코로나가 심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방역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의 일상에도 크나큰 데미지(damage)를 입게 했다. 코로나로 인해 암미 선교회(이하 암미)도 지난해에는 25년을 이어온 뉴스레터조차 발간할 수가 없었다. ●

### 1. 코로나 19가 남긴 것

제작년(2019) 일월에 딸의 돌잔치를 가진 한 다문화 가정(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은 곧바로 전남에 계신 어머님께 다녀와 2월 첫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무렵 코로나 뉴스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암미는 한동안 생기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해(2020) 5월 말에 생명의 축제(The Festival of Life) 대신 '영원한 찬양 팀'을 초청해 찬양을 통한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졌고, 7월 첫 주 맥추감사절 축제도 4인 이내로 하여 국가별로 특별순서를 가진 바 있다. 추수감사절도 지키며 과일봉지 선물에 마스크를 동봉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1월(추수감사절)은 자체헌금이 후원금(개인, 단체)을 크게 앞지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암미의 창립 25주년이 되는 2020 성탄이브는 비대면 예배의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20명이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다. 암미의 지체들이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동영상 보내온 것을 편집해서 보여준 것이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고, 특송으로 필리핀 지체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 성탄축하 찬양을 불렀다. 성탄 식사는 없었어도 대신 사역자들이 공장으로 찾아다니며 과자 선물을 나눠주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생각하니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다.

올해(2021) 들어와서는 사순절에 성도들과 함께 성경필사(마가복음)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고난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묵상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시도해 본 성경필사는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공장 기업주들이 CCTV까지 설치해놓고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하자 다수의 지체들이 보이지 않더니 잘 믿던 지체들마저 하나 둘 주저앉는 모습이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거기다 인접 마을 진건읍(사능)에서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100명 이상 무더기로 발생해 뉴스거리가 되자 큰 충격에 빠져야 했다. 당장 그 주간의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그 전 주에 구정 연휴가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이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다면 분명히 확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보균자가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주일예배를 쉬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암미는 이제까지 문을 닫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종일 끙끙대다 평소 나오는 멤버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주중에 외출했던 사람은 나오지 않게 했다. 그와 같은 시련 속의 예배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마 잊지 못할 것이다. 반주자가 없었어도 급하게 네팔 선교사님이 키보드를 담당해주었고, 드림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온 필리핀 형제가 귀한 헌신으로 연주해주었다. 찬양인도는 언제나 활기있는 필리핀 목사님이 담당해주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예배실 120석 중 24명만 참여할 수 있는 암미 주일예배에는 부활절을 계기로 4~50이 출석하고 있다. 부활절부터 주일예배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예배로 두 번에 나누어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일 오전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멤버들을 위해 필리핀 그룹을 중심으로 페이스북(Facebook)으로 온라인예배를 중계하고 있다. 토요일 저녁 기도회는 종전의 기도제목 중심의 기도회가 아닌 개인기도 위주로 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 2. 시련 속의 은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며 믿음이 약해지는 예가 많았던 것이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연단되어 더욱 귀한 믿음을 소유한 경우들이 있다.

필리핀 형제 호셀리또는 코로나 이전에 암미신교회에서 그다지 중요한 멤버는 아니었다. 더구나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모범이 되지도 못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되자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는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겠으니 허락해달고 했다. 공장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간증거리가 생겼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돈을 조금밖에 안 주던 공장을 떠나겠다고 하니 사장이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그를 붙든 것

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교회에 가끔 참석했던 필리핀 다문화가정 멜쉬 자매의 경우, 코로나가 시작되고 토요일기도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주일예배도 빠지지 않아 다문화가정 멤버들 가운데 모범이 되고 있다. 그를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필리핀 형제 로날드도 코로나가 생기고 오히려 부쩍 교회에 열심을 내더니 지금은 찬양인도자가 되어 있다. 그는 최근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해 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힘든 코로나의 계절에 암미에 은혜를 듬뿍 내려주셨다. 먼저 암미 형편상 20여 년 전에 준비했던 침터(13평)를 급히 매매해야 할 상황이었을 때 (아니면 LH의 압력을 계속 받아야 했음) 노후된 연립주택이어서 매매가 쉽지 않아 수개월 애를 태웠는데 한겨울인 올 1월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었다. 메마른 곳에서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암미 25주년 기념으로 쓴 책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2021.1.30 발간)이 이주민 선교의 전 반을 다룬 이주민 선교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간 후 바로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일보 선정 ‘화제의 책’이 되었으며 연세대 학술정보원과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에 소장도서가 되었다.

무엇보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에 암미다문화센터가 양주출입국관리소로부터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관내 다른 세 곳 기관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는 영예가 주어졌다. 애초에 암미는 교실이 모자라 일반운영 기관 선정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후 3,4층을 증축하고 2년 뒤에 선정되어 늦게 시작했지만 귀한 영예를 얻은 경우라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

변치 않는 영원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2년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이 너무 감사한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힘든 코로나를 겪는 동안 암미에 있었다. 암미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Testimony

1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

God who changed my life



bro. Joselito (Philippines) / 조셀리토 형제 (필리핀)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천주교 성당을 다녔습니다. 나름 종교적이었지만 내 삶은 술, 여자, 도박 등 세속적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영적 삶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삶의 방향도 없었습니다. 나는 불량한 태도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항상 내 유익과 내 가족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이런 나쁜 습관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 쯤 지냈을 때, 한 동료가 저를 암미교회 예배에 초대했는데 저는 그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4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고 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외국인들과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글로리아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도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에 출석 한 후에 나는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교 말씀과 예배 후 셀 그룹 모임이 즐거웠습니다.

Before I came to Korea, I belonged to Roman Catholic Church. Although I was religious, my life was full of worldliness like drinking liquors, womanizing, gambling, and other vices. My spiritual life was empty and had no direction. Personally, I admit I had bad attitude, pride, selfishness, and had no concern with others. I was very self-centered. I always looked upon my own interest and my family. So when I came to Korea, I came with these bad habits and self-centeredness.

After 5 months of my stay here in Korea, my coworker invited me to worship in Ammi church, but I refused many times. One day, I decided to attend 4 o'clock afternoon service and I met many Filipinos along with foreigners worshipping together. I met pastor Gloria and other assistant pastors. After several months of attending the church, I decided to be baptized. I enjoyed the preaching and our cell group meeting after the service.

천천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암미교회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게 된 때는 제가 토요일 기도회에 계속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 토요일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밤으로 바뀌었을 때 제 자신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싶은 뜨거움을 느꼈고, 내 안의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암미 지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토요일 기도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은 정말로 임재하십니다.

깊은 영적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신 암미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제 안에 혼란스럽던 것은 사라지고 점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들이 더 오랫동안 열매 맺는 사역을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의 소망은 가족, 친척, 친구 및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Slowly my life was changed through the word of God. I learned to read the Bible and to pray to God. I realized that I needed the Savior to forgive and cleanse me from all my sins. I accepted Jesus as my Lord and personal Savior through the ministry of Ammi church. Thank God for this church which was used for me to know the Lord Jesus Christ! Being a Christian, I still committed sins and was tempted, but praised God because of His grace and mercy. I was still standing firm in His presence.

What really changed my life as believer was when I constantly attended Saturday prayer meetings. Before, the schedule was twice a month, but when it was changed to every Saturday night, it was a revival for me personally. I felt the fire to pray and intercede for other people. I realized that my self-centeredness was gone. I always pray for the pastors, missionaries, and other Ammi members. The Bible is true because Jesus said that,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of them.” I personally feel that every Saturday prayer meeting. His presence is real.

I am thankful for the life of Ammi pastors who taught us many deep spiritual truths. I learned a lot of things about His words. Slowly, my confusions left me and felt more in love with His words. I pray for more longer and fruitful ministry for them all in the future. Now, as a Christian, I surrendered to the Lord those hindrances of loving Him. My utmost desire is to follow and serve Him for the rest of my life. My desire is to share the gospel to my family, relatives, friends and to other people.

전염병(코로나)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 힘들었을 때 이사야 43:1-3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조셀리토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구절이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추운 날씨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In this pandemic, it is hard to come to church, but I was encouraged by Isaiah 43:1-3. I claim it personally and I quote, “Joselito, the LORD created you and now he says, “Don’t be afraid. I saved you. I named you. You are mine. When you have troubles, I am with you. When you cross rivers, you will not be hurt. When you walk through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hurt you. That’s because I, the LORD, am your God. I, the Holy One of Israel, am your Savior...” This verse increases my faith. I don’t care about the cold weather. Pastor Gloria serves as a model for me, because in spite of her old age, she is still very eager to pray and serve God.

## 암미 기도 제목



1.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암미의 외국인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2.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과정을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3.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암미가 잘 대처할 수 있기를,
4. 암미 스태프의 팀사역 및 초교파 협력선교를 위해,
5. 암미가 파송한 사역자들을 위해 (사무엘 - 브라질, 파블로, 우고, 디아나 - 페루, 리노 - 필리핀, 사키 - 인도)

Testimony  
2

##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

### The changes after I met Jesus



Sis. Mercy (Philippines) / 멀쉬 자매 (필리핀)

저는 필리핀 출신의 Mercy Tisdale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와 1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믿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과 삶은 매우 달랐습니다. 내 삶의 방식은 '될 대로 되라'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고 그른지 신경 쓰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독한 술도 마셔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도박도 했고 돈을 잃어도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I am Mercy Tisdale from Philippines, married to Korean man with three children and one grandchild. I want to share my life's testimony and I hope it can be a blessing to you.

Even during my religious years, I feared God and my parents. But my life was different with my faith. My life was "come what may" lifestyle. I didn't even care if what I did was right or wrong. I didn't care if I hurt people. I mocked and loved to criticize them. I tried also drinking hard drinks. I just wanted to enjoy life no matter and in any ways. I did what will came to my mind and I didn't care what happened next. Sometimes I gambled and if I lost, I didn't care about the money. What was important for me was to enjoy life.

예수님과 저의 영적인 여정의 시작은 제가 구세군 교회를 출석하면서였지만, 암미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느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졌습니다. 차차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술을 마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성령님께서 제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겪은 다음, 그 이후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요즘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깊숙이 꿰고 들어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많은 시련이 있지만, 주님은 항상 그분의 강력한 임재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철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심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암미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 일이 없는 한, 저는 항상 토요일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와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저는 교회의 중보자의 일원이 되어서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었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 가족도 보호해주시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고 항상 나를 위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My spiritual journey in Christ began when I attended The Soldier of Christ Church, but I got to know more about Jesus when I attended Ammi Church. I felt peace inside of me and there was joy of coming to church. Slowly, I lost my desire of drinking liquors. There was an instance that I drank again, but I was convicted by the Holy Spirit. I was struggling inside. Since that time, I stopped drinking. A lot of changes happened to my life nowadays. Listening to Bible study and attending worship really helped me a lot. I admit that it is hard to explain the Bible, but I understand the word of God. It penetrated deep inside of me. I felt that He never leaves me nor forsake me. I have a lot of trials, but He always sustains me with His powerful presence.

I am thankful to God for all Ammi pastors who helped and guided me through their preaching and teachings of God's words. It helped a lot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I became closer to God and I learned to read His words and pray to Him. In fact, as long as there is no work in the company, I always prioritize to worship and intercede for others during Saturday prayer meeting. I am happy to be part of intercessors in the church. It is a privilege to pray for others.

The reason I attended prayer meeting wa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rials in my life. When my mother passed away, I felt I lost everything. I loved my mother so much. I wanted to give up my life, but praised God! Jesus strengthened me. I accepted that she was gone, but there were times that I couldn't control my emotion because I loved her so much. Now, praying is part of my life as a Christian. Thank be to God!

I am always praying to God that this pandemic will end someday and also protect my family. Before I was afraid to go out, but I realized there is no reason to fear. There is nothing to be afraid, especially when we know that God is with us. I trust God who is alive and is always there for me. I will continue my faith to Jesus as long as I live and even in the midst of trials and problems. Amen!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신일호, 김민정 선교사 (태국)



사랑하는 암미교회와 김목사님께 드립니다. 6월의 이곳은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립니다. 태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2,000명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거의 석 달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는 하루 확진자 수가 4-5명 정도로 확진자 수가 매우 적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방학에 들어갔던 태국학교도 평소 때보다 한 달 늦게 새 학기를 이번 주부터 개학하였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많은 방콕이나 중부 지역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10명 미만은 괜찮다고 해서 저와 아내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담당자들과 집에서 예배 할 수 없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였는데 첫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니 점심이 따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몸이 조금 불편한 이름이 '깡'인 형제가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아내가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들은 40명 정도 되는데 요즘 온라인 예배 참여 성도들을 포함하여 15명내외로 참석하고 있어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태국 교



회 현 주소입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식당이나 호텔 청소,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비대면 예배로 성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한국에 계신 한 권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쌀, 통조림, 달걀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교회 목사님과 운영위원과 함께 각 가정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2-3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깡 형제 집을 심방했습니다. 30세 정도 되는데 15살 때 사고로 걷는 것이 다소 불편합니다. 형제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수레를 연결한 자전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5시 경에 집에서 출발하여 시장에서 바나나를 팔고 집에 오면 오전 11시 경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순 수입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바나나 5개를 팔아 20반(8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아마 400반(16,000원) 정도 이겠지요.

그가 살고 있는 방에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도 있었구요. 그래서 그 용도를 물었더니 헌금함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십일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오늘 십일조 헌금은 2반(80원)이겠지요. 깡형제 집에 오기 전에 한 60세 후반 정도되는 ‘피깨’ 집을 심방하였습니다. 그 분은 미국분과 결혼하여 생활하시다 남편 분이 작년 이맘때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매는 좋은 집도 차도 있습니다. 기도제목은 돈을 더 벌면 십일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깡형제를 묵상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깡형제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 뉴스에 의하면 백신 접종으로 올해 후반기에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로 많은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주노동자 중심의 암미교회는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신 암미교회와 김목사님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읽고

김금숙 선교사 (네팔 그룹 인도자)

먼저 이주와 다문화 사역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신구약의 스토리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서부터 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적 고찰에 의하면 이주와 다문화의 원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원리이며,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살리는 다양성의 원리 또한 창세기부터 신약 전반에까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러한 다문화, 다양성의 원리가 오늘날의 교회와 선교 역사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 설문조사와 과학적인 통계자료 및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주민 선교 현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의 수고로움이 돋보였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선교적과제에 대하여 고민과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지 용기와 방법을 제시해 준 점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특히 신학생, 선교사, 선교지망생, 지역교회 목회자와 봉사자,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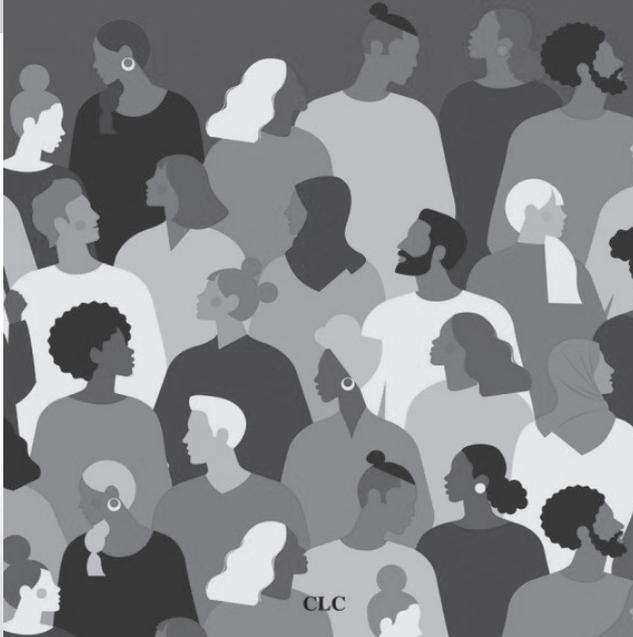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전통적인 선교 이론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혼돈되고 새로워지는 가운데 매우 시기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주의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선교적인 구조를 갖추어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지역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책 커버 디자인이 여러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에 관한 책인 것을 눈에 잘 띄게 보여 주어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책 제목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보다 부제목인'이주민 선교 들여다보기'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이주민 선교 들여다보기

김영애 지음



#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이주민 선교 들여다보기

김영애 지음

이주민 선교 사역에 25년간 몸 담았던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 예장합동총회세계선교회(GMS) 제1호 이주민 선교사로서 발로 뛰었던 사역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책에 담았다.

저자는 타민족 개개의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이주민 선교 사역의 핵심이며, 특정 선교 단체뿐 아니라 지역교회가 함께해야 이주민 선교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로 이주민 선교를 꼽으며, 효율적이고 경험적인 목회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타문화권 선교 사역이 자칫 이론적으로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다르다. 저자의 체험에서 우러난 실제 현장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모색이, 이주민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 ‘C채널 힐링토크 회복플러스’를 시청하고

성기자 권사 (하남 풍성한 교회)

방송에 출연하신 김영애 선교사님의 얼굴이 해바라기 같이 환희 웃는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느낄 수가 있었다. 선교사님께서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처음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부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은혜가 가득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은 사회자 두 분을 많이 웃게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도 만든 것 같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아주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더구나 아무것도 없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다. 협력해주시는 목사님들과 봉사자들, 날로 많아지는 교회 안의 각 나라 이주민들이 함께 이뤄가는 큰 행사 소식들을 듣는 것도 놀라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주민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행사는 감동 그 자체였다. 특히 인도, 페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신 그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길을 원하셔서 신학대학을 택하셨고, 훌륭한 학위도 받으셨는데 특히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 국내 이주민 선교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라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어지신 선교사님을 새롭게 더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선교사님께서 25년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이방인이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방면에 연구서를 하나 내야겠다고 마음을 품으셨다는 말씀이 또 놀라웠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볼 때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선교사님은 홀로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어느덧 25년이 되었다. 이방 땅에서 외로워 암미선교회로 밀려들어 왔던 이주민들을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게 하신 선교사님의 사역간증을 듣는 것은 정말 깊은 감동이요 은혜였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선교사역이 되기를 더욱 기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다.

\* 편집자 주 : 성기자 권사는 암미 초창기에 이,미용 봉사로 암미를 섬겨주신 분이다.

# 암미 선교 소식

(2020. 1. ~ 2021. 6.)

Ammi  
Mission News



## '20 구정수련회

### 2020. 1. ~ 2021. 6.

2020년 구정수련회가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Know your identity in Christ)'라는 주제로 있었다. 두 주일에 걸쳐 부흥회를 갖고, 주일 오후에(20. 1. 26.) 한국선교역사기념관과 송도G타워로 아웃팅을 다녀왔다. 부부 찬양팀인 보배담은 질그릇의 찬양콘서트가 부흥회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수련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이란, 스리랑카 출신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인원 77명).



## '영원한 찬양' 찬양콘서트

### '20. 5. 31

5월 마지막 주일 (20. 5. 31) '영원한 찬양' 팀을 초청하여 찬양콘서트를 가졌다. 원래 5월 마지막 주일은 생명의 축제(The Festival of life)로 암미 지체들이 직접 드라마, 찬양 등을 준비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체들은 마스크를 쓰고 회중으로서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해 눌러있던 외국인 지체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인해 다시금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참석인원 63명)



### 맥추감사주일

'20.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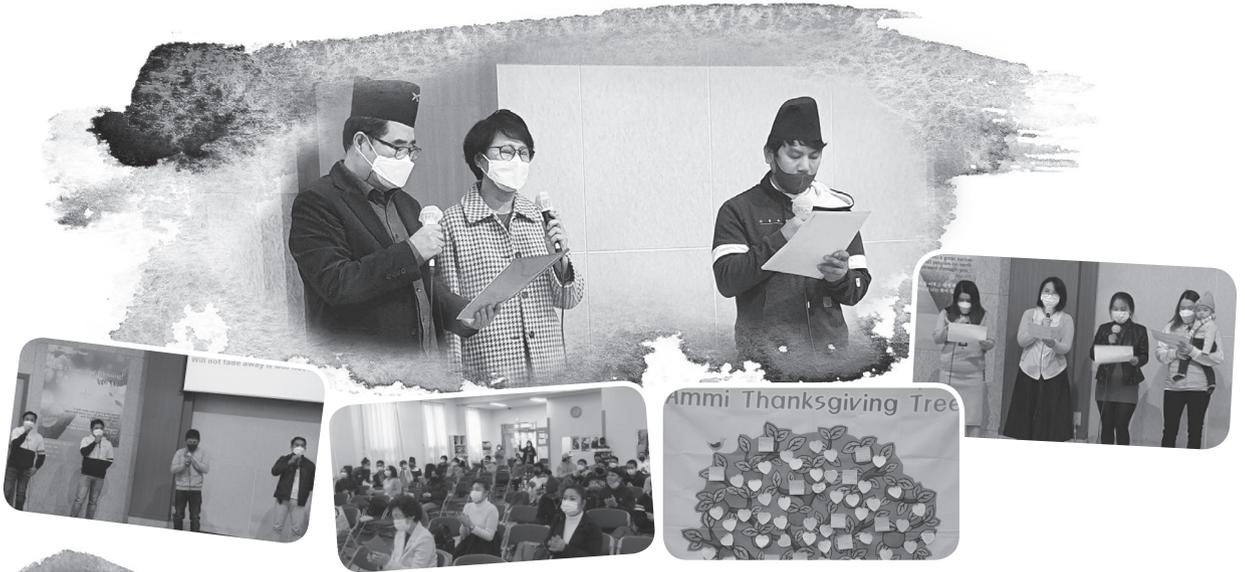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속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너무나 컸기에 정성된 헌금을 드리며 각 나라별로 3명씩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참석인원 71명)



### 유아세례식

'20. 8. 2.

코로나 속에서 암미에 주신 큰 은혜 중 하나는 다문화·이주민 가정 아기가 많이 태어난 것이다. '19년 말에서 '20년 초에 네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 중 베트남과 온두라스 다문화 가정의 아기 두 명이 '20.8.2. 주일에 유아세례를 받았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태어난 이 아기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했다.



## 추수감사주일

2020년 한 해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정성된 헌금과 함께 각 나라별로 최대 4명씩 한 팀으로 특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나무에 지체들의 감사제목들이 가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참석인원 73명)



## 크리스마스

2020년 크리스마스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한 상황인지라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암미 사역자들이 성탄선물을 준비하여 외국인 지체들의 공장을 찾아갔다. 또한 크리스마스 날에 아쉽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었으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성탄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간에 암미 지체들이 각자 찍어 보내준 성탄인사 영상들을 모아서 함께 보며 아기에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함께 축하했다.

## 25주년 기념 저서

'21. 1. 31.

코로나로 인해 암미선교회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25주년 기념으로 2021.1.31. 김영애 선교사 저서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이 출간되었다 (출판사: CLC). 한국교회 이주민선교를 전반적으로 다룬 이 책은 출간 후 곧바로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일보 선정 '화제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 2021사순절 성경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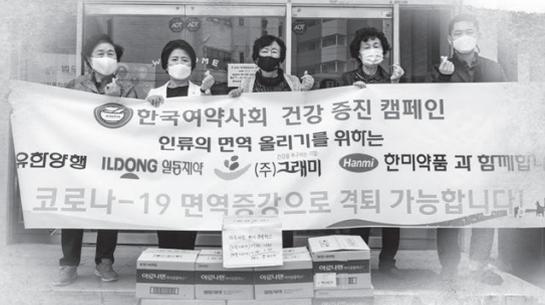
올해 사순절 기간('21. 2. 17.- 4. 3.)은 암미 지체들이 마가복음 11~16장을 필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쓰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쓰기와 그 아래에 묵상내용까지 뽀뽀 쓴 지체들의 노트를 보며 읽을 수 없어도 큰 은혜가 되었다.



## 부활절과 학습예식

'21. 4. 4.

올해 부활절('21. 4. 4.)에 필리핀 출신 멀쉬 자매가 학습세례를 받았다. 학습예식 후에 멀쉬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다. 멀쉬 자매는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경우로서 토요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 대한여약사회 방문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인 방문이 없다가 5. 26. 한국여약사회 회장단 4명의 귀한 방문이 있어 일동제약의 콘센비타와 아로나민 300개를 기증받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계속 움츠려있는 외국인들에게 큰 위로의 좋은 선물이 되었다.

## 14회 세계인의 날 사회통합 유공자 포상식

11. 05. 20. (목) 11:00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유공자 포상식 장소: 양주출입국대강당  
 후원: 양주출입국사회동



## 세계인의 날 표창

'21. 5. 20.

5월 20일 제 14회 세계인의 날에 암미다문화센터가 법무부 소속 양주출입국관리소로부터 그동안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가 있었다. 한편 암미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사로 섬겨온 이강년 선생이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기쁨이 배가되었다.

## 기독교방송 C채널 출연

'21. 5. 20.

5월 20일 김영애 선교사가 C채널의 '힐링 토크 회복플러스' 프로그램(341회)에 출연하여 42분간 그동안의 사역간증을 했다. 자신이 이주민 선교에 부름받기 까지 개인 간증을 포함한 힐링 토크 회복플러스는 한국교회에 이주민선교를 알리려는 김선교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021. 1. 1. ~ 2021. 6. 25. |

## 단 체

가나안교회, 내곡교회, 늘만나식품, 늘푸른진건교회, 다산한의원, 다일교회, 대전대일장로교회, 대전생명의 빛교회, 맑은샘교회, 뽕엘교회, 보성교회 제2여전도회, 분당사랑교회, 사랑의교회, 새암교회, 성광교회, 성약교회, 예수길벗교회, 오남광영교회, 은성교회, 은천교회, 진접오남지역연합회, 창조교회 사회봉사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푸른초장교회, 화평교회

## 개 인

가혜화, 권경자, 김금자, 김기복, 김성자, 김양자, 김영숙, 김영호, 김옥순, 김완경, 김용태, 김정숙, 김정재, 김진선, 민봉기, 박가영, 박금희, 박상록, 박영신, 박주상, 박찬영, 박희숙, 성기자, 성범규(조아정), 신화영, 양명선, 유형호, 윤동연, 이복현, 이은현, 이재숙, 이정자, 이청심, 이해정, 임무빈, 임선옥, 장미순, 최옥주, 탁진희, 하인희, 한복숙, 한지수(이효숙), KIMHYES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 : 2021. 1. 1. ~ 2021. 6. 20.

### ■식사봉사 (간식제공)

사랑의교회팀, 다일교회, 가나안교회, 은성교회, 박상록, 탁진희

### ■의료봉사

중계중성교회, 소망교회 (의약품기증), 할렐루야교회 (외국인 병원치료비 보조)

### ■구제, 선물 및 기증

구리월드비전교회 (과자류), 김명숙 (배), 대한여약사회 (의약품 및 영양제), 새암교회 (의류 및 김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화장품), 소망교회 의료선교회 (약품), 예수길벗교회 (의류 및 생필품), 살렘교회, 이앤더블유글로벌 (마스크), 임규옥 권사 (의류 및 생필품), 전인교회 (의류 및 생필품), 진접오남지역연합회 (마스크 및 생필품), 천성교회 (다문화가정 생필품), 할렐루야 교회 (다문화 가정 장학금)

### ■선교회를 방문해주신 분들

대한여약사회, 새암교회, 예수길벗교회, 진접오남지역연합회, 양옥진 선교사

암미선교회  
후원구좌

국민은행 838-21-0141-221 예금주:김영애 (암미선교회)  
농협 204051-51-055753 예금주:김영애  
우체국 013797-02-014-361 예금주:김영애

※송금 후 확인전화를 꼭 주세요! 주소확인이 필요합니다.

## AMMI MINISTRIES for Foreign Workers!

- English & Korean Worship Service (Sun 11:00 am) 영어/한국어예배(주일 오전 11시)
- KIIP Korean Class (Sun 1:30-7:00 pm)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실(일요일 오후 1시반-7시)
- Counseling 상담
- Medical Clinic (Every 2nd Sun 1:30-4:00 pm) 의료진료(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반-4시)
- Haircut Service (Every 1st, 3rd Sun 12:30-1:30 pm) 이머용서비스(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2시반-1시반)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ohn 10:27

발행인 조말수

편집위원 김영애 이원기

이강녀 김혜성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6번길 24

전화 031)571-6554

031)574-3797

010-5390-3797

팩스 031)571-6521

이메일 gloria3797@hanmail.net

홈페이지 www.ammi.or.kr

(사) 암미선교회 조직

자문위원 김명혁 김희수

이사장 조말수

대표 김영애

운영위원회 김병식 권중현 김응렬

이성무 함형민 임재용

김 영



‘암미’는 히브리어로 “내 백성”(호 2:1)이라는 뜻으로 이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mmi’ means “My people” in Hebrew and it expresses the Lord’s mind calling for every foreign stranger to be here.



디자인 꿈마을예닮

02)529-4003

Ammi Mission Church

031)574-3797, 571-6554  
010-5390-3797